

022022 주일설교 “**요셉과 하나님의 구원**” 창세기(Genesis) 45:3-11

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노아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죽은 줄로만 여겼던 야곱의 열한번째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야곱의 식솔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었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지속되다 보니 형들은 요셉에게 정말 하지말아야 할 짓까지 했습니다. 동생 요셉을 은화 20냥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지요.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국무술영화를 좋아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복수예요! 가령, 아버지는 유언으로 아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오랜시간 무술을 연마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의 아들이, 또 산속에 들어가서 무술을 배워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는... 2탄이 나와

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우스개 소리 같지만, 실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일들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 앞에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3절에 보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런 형들의 마음이 후에 그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다시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 동안은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으면 어떻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시키셔서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과 피해를 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이 파워를 갖게 되었다면 말입니다. 보통은 복수, 피바람으로 연결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창세기에서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됩니다!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기가막힌 말을 해요.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이 죽도록 미웠을 거예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해주신게 뭐가 있나 느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분명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마춰보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움, 원수갚음이라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그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한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죄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양육하겠다는 하지요.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

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흥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원수를 갚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형들의 가족들까지 들보는 책임을 자신이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때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이때는 “아버지” 야곱을 봐서 참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후에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과연 요셉의 복수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디다.

이건 그냥 사람이 착해서 되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셉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모든 일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읽게 되거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창세기 39:9)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통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같으면,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을 겁니다. 그 원망의 골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 깊어만 갔을거예요.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으니 원수들이고, 하나님은 날 위해 아무것도 해준게 없으니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생긴 현상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으며, 도데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죄[하마르티아: hamartia in Greek]는 missing the target이라는 의미인데, 인생은 원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있는데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구요, 자꾸 하나님을 모른척하고,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난 하나님과 상관없다!!!” 대신에, 물질을 타겟으로 삼거나, 출세나 성공이나 인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주인의 아내한테 모함받았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 했지만 2년동안 잊혀 졌었고, 한없는 한탄과 원망이 그를 애워쌌겠고 그래서 평생 남탓만하며 살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시다! 요셉은 그 모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보디발의 눈에 들게하셨고, 간수장의 눈에 들게하셨고, 바로왕의 눈에 들게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7년동안의 기근으로 죽지 않고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힘든 시대에 하루 하루 살아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삶으로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만 보지 마시길 바래요.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안보여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들린다니까요! 반면에, 사람들이 미워지구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게 없어!” 하나님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결론짓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구비구비 마다 인도해 주셨던, 때론 도움의 사람을 여러분 삶에 붙여주시기도 하셨고, 때론 말도 안되는 기적의 순간도 경험케 하셨으며,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해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실 거예요. 요셉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피에타 조각상을 아시지요?

피에타(Pietà)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있는데요. 피에타 조각상은 바티칸시 성 베드로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르네상스 시대 조각예술의 대표적인 작품이지요. 당시 로마에 체류 중이었던 프랑스 추기경 장 드 빌레르(Jean de Bilheres)의 의뢰로 3년에 걸쳐 만든 것입니다. 피에타상은 유일하게 미켈란젤로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새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듯이,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비탄에 잠겨 있는 모습이에요. 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이 저미는 아픔과 동시에 거룩함을 느끼게 하지요. 피에타 상에 관련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피에타 상이 완성되었을 때 교황과 추기경, 귀족들이 제막식에 모였답니다. 모든 사람들은 피에타 상을 보고는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이 작품에 압도되었답니다.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당신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예술가요!” 라고 치하했는데, 그 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교황님, 피에타상은 제가 조각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이 대리석 덩어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피에타상이 드러나도록, 곁에 붙은 부스러기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피에타는 ‘경건한 마음’ 이라는 뜻입니다. 즉 경건은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듬고 다듬어서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경건이에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도 비록 오늘의 현실이 참~ 여러가지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연구를 하시든, 가정을 돌보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폭풍우가 몰아 닦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아름답게 바꿔주실 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삶에 아픔, 두려움, 상처, 혹은 저주, 썩부리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안에서 평안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